

“공사대금 달라” 건설 장비 철수 ... 어수선

■ 르포 ... 여수박람회장 공사중단 현장 “내일부터 전면 중단” 파장 촉각

8일 오전 찾은 여수시 덕충동 여수엑스포 박람회 건설현장. 엑스포 개막을 60여 일을 앞두고 막바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일부 업자들이 공사대금 체불로 건설 장비를 철수시켜 공기(工期) 차질이 우려됐던 것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대회 핵심건물인 국제관과 빅오(Big-O), 기업관에서는 내부 시설 공사, 창닫기, 주변 환경정리 등 막바지 작업이 진행중이었다.

대회 조직위 한 관계자는 “현재 공정률은 95%에 이르며, 국제관과 빅오 등은 건물이 사실상 완공단계여서 문제가 된 굴착기 등 중장비를 철수할 일이 거의 없다”며 “공사는 대

회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현장의 체불임금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수 건설연합회측(이하 연합회)과 원청사인 현대건설이 이날 오전·오후에 1·2차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차로 결렬됐다. 연합회 측은 “지난달 자금난으로 법정관리를 신

청한 조정공사 업체인 D사의 빅오 현장내 공사 미지급금 85%(8000여 만원)를 원청사인 현대건설 측에서 보전해달라” 요구한 반면, 현대건설 측은 “40%정도 보전해 줄 수 있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 측은 “8일 협상이 결렬돼 9일부터 연합회 회원 3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시위를 열 계획”이라며 “이후에도 협상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10일부터 박람회장 전체 공사장에 장비투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직위 한 관계자는 “원

청사인 현대건설과 여수 건설기계연합회 측이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협상을 벌이고 있고, 최악의 경우 외지 업체를 투입, 마무리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위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한 박람회 공사 현장 장비대여 미지급금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D사 등 20여곳 총 7억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한 D사의 1억여원을 뺀 나머지 6억6000만원은 이달 중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im@



꼬막 협약

보성군·중 저장성 인공종묘 연구·기술 공유키로

보성군은 8일 중국 저장(浙江)성 수산과학연구소와 참꼬막 등 인공 종묘 생산과 수산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참꼬막 등 패류 인공종묘 생산을 위한 연구 수행과 기술교류, 각종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보성군은 전국적인 유명세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벌교꼬막의 수급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2013년까지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벌교

꼬막 종묘 배양장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성군은 벌교꼬막 인공종묘 배양장 사업에 중국수산과학연구소의 다양한 수산 기술이 접목되면 인공종묘 생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중국의 수산기술 교류가 벌교꼬막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가격안정화에 크게 기여하는 등 지역수산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동부취재본부=김윤성기자 kim0686@

하지감자 심어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한 농민이 지난 7일 강진군 군동면 들녘에서 ‘하지(夏至) 감자’를 심기 위해 이랑 사이에 돌아난 잡초를 뽑고 있다. ‘하지 감자’는 봄철에 심어 하지 즈음에 수확을 한다. <강진군 제공>

넓은 농공단지 18곳 리모델링

전남도 48억 원 들여 진입로 포장 등 공사

전남도가 48억원을 들여 넓은 농공단지 18곳의 진입로를 포장하는 등 기반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펼친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에 현재 51개 농공단지(918만7000㎡)가 조성돼 있고, 이중 조성 완료된 48개 농공단지

(863만5천㎡)의 분양률은 98%이며 공장 가동률은 90%다.

하지만 일부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이 노후해 입주기업이 불편을 겪고 있어 전남도는 지난해 35억원을 지원해 관리사무소 신축, 공원 정비, 진출입로 포장 등을 추진했다.

올해는 16개 시·군 농공단지 18개소를 선정해 리모델링 사업비 48억원(시·군비 50% 포함)을 지원한다.

또 전남도는 올해 광양·강진·화

순·장흥·함평·해남·안동·영광 등 8개소(130만㎡)의 신규 농공단지를 지정, 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남도 윤진보 건설방재국장은 “향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농공단지를 집중 조성하고 노후 농공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업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수상의 회장단 9개월만에 공식 출범

심장섭 회장 취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단이 9개월만에 공식 출범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8일 상의 회의실에서 심장섭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장섭(사진·72·재원산업㈜ 대표이사) 신임회장과 이수현(여수수산물공정협회 회장)·문상봉(㈜대광물류 대표이사) 부회장 등 회장단 취임식을 가졌다.

심 신임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지역사회와 여수수산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 회장은 특히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상공인들이 해야 할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남해안 선벨트 사업의 중심지역인 광양만권의 거점 상공회의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회장은 이날 우수학생 장학금 수여와 함께 1억원의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쾌적하고, 여수상공회의소는 5억원의 기금을 별도로 전달하기로 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장흥 노력항 출발 ‘오렌지호’ 제주관광 100만 ‘눈앞’

현재 91만...5월께 돌파

장흥 노력항을 이용해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1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8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 노력항과 제주 성산포항을 오가는 카페리 ‘오렌지호’가 처음 취항한 후 6일 현재 관광객 91만명을 기록했다.

장흥군은 지난 1월 이용객이 4만6000명, 2월 2만6000명 등 최근 월평균 3만명이 넘는 점을 근거로 5월께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오렌지호를 운항하는 ㈜장흥해운은 최근 회사 이름을 ㈜제이에이치 페리로 바꾸고 5월부터 글로벌 시대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의 ‘오렌지호’보다 규모가 큰 ‘오렌지 1호’를 새로 취항시켰다.

‘오렌지 1호’는 승객 825명((우등석 188석·일반석 637석)

과 차량 90여대를 싣는 4200t급으로 장흥군 노력항에서 출발, 제주 성산포항까지 2시간 15분 만에 도착하는 쾌속 카페리다. 신규 취항한 ‘오렌지 1호’는 이용객의 편안함과 편리성을 강조하며, 고급 좌석인 비즈니스석 좌석을 대폭 늘리고 매점 등 편의시설을 보강했다.

승객 564명을 차량 70대를 싣을 수 있는 기존의 ‘오렌지호’(2400t급)는 이달 말까지 수리를 마친후 4월부터 다시 노선에 투입된다.

㈜제이에이치 페리는 ‘오렌지호’ 이용객 10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자동차 경주를 내세우는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가장 빠르게 제주를 방문할 수 있는 노력항에서 ‘오렌지 1호’가 새롭게 취항함에 따라 더욱 편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주민·경찰 손잡고 학교폭력 예방 나주 금천파출소 체감치안 ‘방법 간담회’

나주경찰서(서장 박병동) 금천파출소는 최근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장을 비롯한 이장단 등 20여명을 초청, 주민만족 체감치안을 위한 ‘방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법 간담회’는 지역주민들의 경찰활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방법 취약지역을 건의받는 등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비롯해 교통사고 예방, 빈집발이 등의 예방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회 활동과 등교

시 거리질서 캠페인 실시, 학부모와 지역주민 및 경찰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폭력의 근원적 문제를 바로 잡는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관동 금천 파출소장은 “주민의 필요와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등 분석해 주민 공감 치안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천파출소는 이번 간담회에서 1년 동안 관내 방법 치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주민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동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Le **쿠스쿠스** 패밀리레스토랑

종이 울리면 따뜻한 음식이 나옵니다.
당신께 드리는 **맛의 사치**

2012년 CUSCUS ART HOUSE

쿠스쿠스
패밀리레스토랑

광주 수원점 광주 신세계점 광주 상무점

062-371-0011 062-360-1981 062-383-3839

쿠스쿠스 광주 수원점
체인점문의 062-371-0011
체인점지역 대전, 전북, 전남, 광주